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3.25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자하리에바, EU 연구 프로그램 자금배분 계획에 대한 우려 속 “가입기간 종료 시점 참여수준 반영해 예산 배정할 것”(3.24)
 - 지난 2월 집행위가 준회원국 분담금을 해당 국가가 우수성과를 보이는 연구 프로그램(MSCA 등)이 아닌 생물다양성 등 정책 우선 분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유럽의회에서 우려가 제기됨
 - 자하리에바는 이에 대해 연도별 배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, 최종적으로는 준회원국의 프로그램 참여 수준을 반영하여 정산하겠다고 설명하며 우려를 완화하려 함
- EPO 특허출원 건수 사상 최고치 기록...한국 출원 증가세 두드러져(3.24)
 - 2025년 유럽특허청(EPO) 특허출원 건수가 사상 최고치(총 20만 1,974건, 전년 대비 1.4% 증가)를 기록, 디지털·에너지 특허 수요가 크게 증가. 미국·독일이 출원국 상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처음으로 3위 진입
 - 컴퓨터 기술 분야가 최대 비중 유지(AI·양자 성장세 기인), 전반적으로 상위 10대 기술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유럽 혁신 주체가 선도적 위치
 - EPO 39개 회원국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0.4% 증가에 그친 반면, 중국(9.7%)과 한국(9.5%)이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. 삼성·LG가 전 세계 특허출원 1, 3위를 차지하며, 상위 10개 기업 중 유럽기업은 4곳
- EU 집행위원회, 단일 기업 규정 ‘EU Inc.’ 제안 발표(3.18)
 - 집행위는 새로운 EU 단일 기업규정 ‘EU Inc.’를 제안. 동 규정은 기업들이 단일화된 규칙으로 국경을 넘어 쉽게 설립·운영·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
 - 초저비용·초고속 디지털 설립과 간소화된 절차로 창업·운영·청산까지 효율화, 또한 투자·인재 유치와 단일시장 접근을 강화하면서 각국 규정을 유지해 유연성과 남용방지 추구
- (기타) ▲ERC 의장, 연구지원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회의 지지 환영(3.19)
 ▲EU 집행위원회, ‘유럽 혁신법(European Innovation Act)’ 발표 연기(3.19)
 ▲영국 슈퍼컴퓨터 ‘ARCHER2’, 경제효과 42억 파운드 창출(3.18)